

대중교통 이용 하루 평균 112만명

대구시 조사 준공영제 도입후 28.7% 늘어

교통카드 사용률도 85% 증가...수입금 투명화

대구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년만에 하루 평균(평일 기준) 대중교통 이용자가 112만명으로 나타났다.

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후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는 하루 평균 112만명으로 준공영제 도입 전 87만명에 비해 28.7%

증가했다.

특히 준공영제 도입 이전에 해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3.2%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 증가폭은 더욱 큰 것이다.

또 준공영제 시행 전 50%에 못미치던 교통카드 사용률이 85%에 달해 버스회사 수입금이 투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

다.

환승요금 무료,할인제 도입에 따라 하루 평균 환승객이 대중교통 이용자의 15%에서 20%로 증가했지만 이로 인해 버스 운송수입금은 하루 평균 6억6천900만원에서 6억7천100만으로 0.5% 증가하는데 그쳤다.

또 버스전용차로의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0.1km 빨라졌으며 특히 국채보상로와 중앙대

로는 시속 4km이상 개선됐다. 시내버스 대인사고는 월 평균 97건에서 87건으로 10.3%, 대물사고는 83건에서 58건으로 30.1%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 밖에 승용차 이용자는 하루 166만명에서 157만명으로 9만명 줄어 대중교통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.

대구시 이일환 버스정책담당관은 "올 연말까지 2단계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뒤 정확한 버스운행 정보를 제공해 과속,난폭 운행을 방지하고 배차간격 개선과 버스 기사의 친절도 향상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박무환기자

pmang@kyongbuk.co.kr